



신경과 / 신경외과 집중치료실, 항암치료전문병동 개소

뇌혈관, 뇌졸중, 암 환자를 위한 전문진료시스템 갖춰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맞춤 치료로 효과 극대화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이 10월 6일과 20일 각각 뇌혈관·뇌졸중 집중치료실, 항암치료전문병동을 개소하고 중증도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였다.

신경외과 뇌혈관, 신경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기존 중환자실의 원활한 운영과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입원하는 환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개소되었으며, 중증도에 따른 환자 맞춤 치료 및 응급실에서 중환자실 부족으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구축됐다.

신경외과 집중치료실/신경과 뇌신경 집중치료실은 신경외과 병동(61병동)과 신경과 병동(113병동)에 각각 3개의 병상으로 구성되며, 진단인력을 비롯한 심전도, 산소포화도, 혈압 등 활력 징후를 측정할 수 있는 감시 장치와 각종 장비 등이 배치된다.

또한 암환자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정확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항암치료전문병동인 121병동을 개소하고 최고수준의 항암치료시스템을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121병동 내 무균병동, 지하 1층 암센터를 개소하여 암 치료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차상훈 원장은 개소식에서 “이번 뇌혈관·뇌졸중 집중치료실 및 항암치료전문병동 개소를 통해 안산, 시흥 지역의 주민 뿐 아니라 경기 서남부 지역의 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과 신속하고 유기적인 다학제치료를 강화하여 각종 검사에서부터 수술 및 시술, 재활치료에 이르기까지 보다 더 체계적인 치료로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고대 안산병원은 이번 개소를 통해 가동병상을 710여 병상으로 확장하는 등 경기 서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병원으로써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Contents

2p
센터소개



2p
장기이식수술



3p
세계속의 안산병원

국제수준의 의료진(3)



4p
센터소개



5p
클리닉소개



8p
언론에 소개된 논문

와이파이 신호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



How to contact 고대안산병원

- 전 화 예 약 - 진료예약센터 : 1577-7516
예약시간 : 평일 08:00 ~ 18:00, 토요일 08:00 ~ 13:00
- 인터넷예약 - 홈페이지(ansan.kum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예약
※예약일정이 확정되면 진료일 전날 고객님의 핸드폰으로 SMS문자가 발송됩니다.
- 진료협력센터: 031)412-5103 □ 응급의료센터: 031)412-5381 □ 종합건강진단센터: 031)412-5865



고대병원 모바일웹 접속

신장내과 / 장기이식센터 확장 오픈 협진 통한 '장기이식 치료' 새로운 장 열어



신장내과 교수진 소개

- ① 차대룡 교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장내과 과장
 대한신장학회 윤리이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분야 신장이식, 사구체신염, 부종, 투석
 진료시간 오전(월, 수, 목) 오후(수)
- ② 강영선 교수**
 前 대한신장학회 학술위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분야 고혈압, 당뇨, 단백뇨, 혈뇨, 부종, 투석, 이식
 진료시간 오전(화, 금) 오후(화, 목)
- ③ 차진주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분야 고혈압, 당뇨, 단백뇨, 혈뇨, 부종, 투석, 이식
 진료시간 오전(화, 수, 금) 오후(수)
- ④ 김성진 교수**
 대한신장학회 정회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분야 고혈압, 당뇨, 단백뇨, 혈뇨, 부종, 투석, 이식
 진료시간 오전(월) 오후(금)
- ⑤ 민혜숙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분야 고혈압, 당뇨, 단백뇨, 혈뇨, 부종, 투석, 이식
 진료시간 오전(목) 오후(월)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이 8월 4일 외래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별관 2층에 신장내과와 장기이식센터를 확장 오픈하여 장기이식 환자를 위한 집중치료를 가능하게 했다.

새로 단장한 오픈식에서는 차상훈 병원장을 비롯하여 최병민 진료부원장, 송태진 연구부원장, 차대룡 신장내과 과장 및 다수의 의료진들과 각 행정부서장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오픈을 통해 고대 안산병원은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인공신장실을 확장개소하며 신부전 환자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최첨단의 시스템을 도입, 투석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혈액투석치료 1등급으로 평가받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신장내과 차대룡 교수는 “투석 치료를 받으며 이식을 대기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한층 강화된 신장내과의 진료시스템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건강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이식센터는 이식의 대상이 되는 말기 신부전, 급성간부전, 만성간부전, 당뇨 합병증 환자 등에 대한 이식 대상자 관리, 수술 전 준비, 수술 시행 및 수술 후 지속 면역 억제 치료 등을 시행한다. 이미 개소 전부터 송태진 교수가 이끄는 장기이식팀이 다수의 간이식, 신장 이식 뿐만 아니라 심장이식 등 다양한 이식수술을 성공적으로 해온 고대 안산병원은 장기이식센터 개소를 통해 수술 중 최고 난이도인 장기이식수술 분야의 강점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차상훈 원장은 오픈식에서 “이번 신장내과/ 장기이식센터 확장 오픈으로 여러 진료과가 협력하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다학제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장기이식 환자를 위한 최상의 진료환경을 구축했다”며 “이를 시작으로 암센터, 심혈관센터, 소화기센터 등을 차례로 개소하여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상급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명의 신장을 형제에게 동시이식 성공 앞으로도 장기이식분야 전문성 높일 것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이 한 명의 뇌사자로부터 기증받은 신장을 동시에 형제에게 각각 이식하는데 성공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장기를 적출, 이식하는 것도 어려운 장기이식수술에서 이처럼 한 병원이 동시에 신장을 두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이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환자인 김 모(47세) 형제는 모두가 만성 신부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대 안산병원에서 복막투석을 받을 만큼 상태가 악화일로에 있었지만,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극적으로 유전자변이가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형제가 동시에 이식수술을 받기에는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놓칠 위기에 처했다. 사연을 전해들은 고려대 안산병원 의료사회사업팀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고, 형제는 무사히 신장이식을 받을 수 있었다.

간담췌외과 송태진, 한형준, 윤삼열, 이진석 교수로 이루어진 장기이식팀(신장, 간이식)은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신장이식수술을 준비했고, 지난 9월 22일 오후 4시 김 모 형제의 신장이식수술을 시작했다. 8시간에 걸쳐 진행된 수술은 자정이 되어서야 끝났다. 송태진 교수가 이끄는 장기이식팀은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만일의 사태까지 철저히 대비했고, 조금의 실수도 없이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 김 모 형제는 수술을 마치고 빠른 회복을 보였으며, 동생은 지난 10월 17일, 형은 10월 20일 퇴원했다.

김 모 형제는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장기기증자와 고대 안산병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이들의 노력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수술을 이끈 송태진 교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고난도의 이식수술을 진행한 것은 그만큼 의료적 수준이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이식수술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면모를 이어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장기이식을 위해 고대 안산병원 의료진들은 최선의 노력으로 환자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췌외과 송태진 교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간담췌외과 과장
 미국간담췌외과학회 정회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분야 간, 췌장, 담도질환, 장기이식, 혈관, 복강경수술
 진료시간 오전(월, 금)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국제수준의 의료진 (3)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는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 및 의료기관에서 연구교수, 교환교수, 방문교수,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우수한 의료진들이 직접 진료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최고수준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약한 안산병원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정성우 교수 〈소화기내과〉

대한 소화기학회 교육위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연수기간 2013. 09 ~ 2014. 08

연수내용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세포막에 대한 리포좀 리놀렌산의 항균 기전에 대한 연구

전문분야 상부 위장관질환(소화성궤양, 헬리코박터 클리닉), 치료내시경(위, 식도 종양)

진료시간 오전(화, 금) 오후(화)



서지아 교수 〈내분비내과〉

대한당뇨병학회 홍보위원회 홍보위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연수기간 2012. 09 ~ 2014. 08

연수내용 당뇨병과 비만 발생에 대한 클루스테린의 역할

전문분야 당뇨, 갑상선, 골다공증, 뇌하수체, 부신, 비만

진료시간 오전(월, 수, 목) 오후(수)

정상인도 야간혈압 증가시 뇌백질변화 위험 1.5배 증가 중증도이상의 수면무호흡이 동반된 경우 위험 4.7배까지 치솟아

고혈압이 없는 정상인의 경우에도, 야간수면 중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 정상혈압인 사람들보다 뇌백질변화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대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 신철 교수팀에 소속된 이성희 박사는 40-69세의 정상혈압을 가진 성인 남녀 703명을 대상으로 수면다원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혈압약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703명의 정상인들 사이에서도 야간수면 중에는 낮 동안의 혈압에 비해 높은 혈압을 보이는 사람들이 12.7%로 조사 되었다. 수면중 발생하는 혈압 상승은 자율신경계 조절장애와 교감신경 활성화 증가로 인한 것으로 수면무호흡 환자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야간수면 상태에서의 혈압상승과 뇌백질변화와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낮 동안과 밤 동안 수축기혈압 차이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들을 구분했다. 일반적인 경우 수면 중 수축기혈압 차이가 10-20%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일반' 으로 하고 혈압이 증가하는 경우를 '상승' 으로 설정하여 비교한 결과, 밤에 잠을 자면서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 뇌백질변화 위험을 정상상태보다 약 1.5배 증가시켰다.

특히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측정된 무호흡-저호흡 지수(apnea-hypopnea index, AHI)로 실험 대상자들을 정상, 경증도 수면무호흡, 중증도 수면무호흡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야간수면 시 혈압상승 상태에서 중증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뇌

백질변화 위험이 약 4.7배까지 치솟았다.

신철 교수는 "뇌백질변화는 고혈압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인도 치매와 알츠하이머 발생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하고 "수면 문제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등 수면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조기에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뇌백질변화 위험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수면장애는 본인이 수면장애여부를 스스로 인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족 중에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결과는 올해 10월 해외저명 학술지인 '고혈압 저널(Journal of Hypertension)' 32호에 게재될 예정이다.(저자: 이성희, Robert Joseph Thomas, 김현, 서형석, 백인경, 윤대위, 김세중, 이승구, 신철) 



호흡기내과 신철 교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 소장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과장
미국 하와이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분야 수면장애(수면무호흡, 코골이, 기면증 등)
진료시간 오후(월, 수)

국내외 진료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 진료협력센터

지역사회 의료발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 위해 노력할 터



고려대 안산병원 진료협력센터(센터장 박종태)는 지역주민보건건강 향상과 지역사회 의료발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진료협력센터는 290여개의 협력병원과 주기적으로 지역별·진료과목별 간담회, 진료협력 홍보물 제작, 병원 라운딩 등을 통해 진료의뢰환자와 관련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진료협력센터는 7월 3일 오후 7시 한양대ERICA캠퍼스 게스트하우스 사파이어홀에서 협력병원 의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주민보건건강 향상과 지역사회 의료발전을 위해 고려대 안산병원이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차상훈 병원장, 송우혁 기획실장, 응급의학센터장 문성우 교수, 이비인후과장 권순영 교수, 안과 김성우 교수 등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주요인사와 안산지역 내 협력병원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차상훈 병원장은 "안산병원과 협력병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안산병원은 협력병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외 글로벌 의료홍보 사업에도 진출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업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9월 30일(화)부터 10월 3일(금)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수라바야에서 열린 '2014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국제의료 홍보사업'에 참석했다.

본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국제의료협회(GIMA, Gyeonggi International Medical Association)에서 공동 주관하는 국제행사로 경기도청, 경기국제의료협회, 고대 안산병원을 비롯한 7개 병원의 20여 명이 참석해 현지 에이전시 및 의료관계자들 100여명 과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교류의 장을 펼쳤다.

고대 안산병원은 국제진료파트 단장 조원민 교수 등 국제협력팀 5명이 유치단으로 참석했으며, 국제의료홍보회, 국제학술대회, 비즈니스 상담회, 현지 병원 시찰 등을 통해 고대 안산병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고, 현지 에이전시 및 의료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조원민 교수는 "앞으로 국제의료 홍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고려대학교의 브랜드 가치와 고대 안산병원의 기술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해외환자 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첨단 혈관조영촬영장비(Angiography System) 도입!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된 독일 지멘스사의 최첨단 혈관조영촬영장비로 새로운 X-ray Tube 와 Detector를 탑재했습니다. 기존 장비보다 업그레이드 되어 혈관촬영장비를 이용한 'DynaCT' 구현, 좀 더 용이하게 간암에서 영양공급혈관을 찾아주는 'Embolization Guidance' 기능, 조직검사 등 바늘과 관련한 시술에서 정확하고 신속히 위치를 찾을 수 있는 '1 needle Guidance' 기능 등이 설치되어 환자에게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술합니다.



모든 통증을 치료한다 : 통증클리닉

참지 말고 적극적인 치료 받아야



통증은 수용체를 지닌 특수한 신경에 대한 자극으로 인해 생기는 불쾌한 감각을 말한다. 통증은 다른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증상이지만, 그 자체로 치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통증을 가볍게 생각하고,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조기에 적절한 통증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통한 생명의 연장과 함께 고통 없는 삶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에, 통증의 적극적인 치료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증클리닉은 급·만성 통증의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이다. 급성 통증은 신체 내의 조직이나 장기가 손상되었을 때, 또는 일부 신체 조직에 염증이 생겼을 때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만성 통증은 조기에 질병을 적절히 치료하지 못했거나, 환자가 통증을 참거나 무시해 버림으로써 오랜 기간 통증이 지속되어 발생하게 된다. 급성 통증의 경우 내·외과적 치료를 통해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만성 통증으로 접어들게 되면 통증 자체가 가지는 생물학적인 중요성(인체의 보호기능)은 상실되고, 불안감, 우울증 등 심리

적인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급성의 경우보다 치료가 더 어렵고 치료의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통증클리닉에서는 다양한 만성 통증을 여러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 삼차 신경통, 비정형 안면통, 목과 어깨의 통증, 팔·손목 통증, 흉추·요추의 통증, 하지통,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말초신경병증성 통증, 당뇨병성 신경증, 섬유 근육통 등이 치료 대상이 되며, 이외 에도 안면 마비와 경련, 이명 등 통증은 없지만 불편함이 동반되는 경우도 통증클리닉에서의 치료 대상이 된다.

통증클리닉에서 시행하는 치료 방법은 국소마취제, 부신피질호르몬제 및 마약성진통제 등을 병용하여 투여하는 신경차단법이 주를 이루고,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이 보조적으로 사용된다. 신경차단법이란 통증의 원인이 되는 곳의 신경 또는 신경절에 약물을 주입하거나 물리적 방법으로 신경의 흥분을 억제시켜서, 비정상적인 병변을 개선하고 혈류를 증가시키며, 흥분 전도를 억제하여 통증을 없앤다. 또한 신경 흥분 전도의 억제로 인한 근력의 저하는 경련 등의 치료에 효과적이다. 물리적인 신경차단법은 신경에 열을 가한다거나 냉각시킴으로써 흥분 전도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알코올이나 페놀을 사용하는 장기간적인 신경차단 방법과 그 효과가 비슷하다.

한편, 대한통증학회에서는 통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인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통증주간 및 통증의 날'을 지정해 '통증도 병이다.', '통증, 조기치료가 중요합니다.' 등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이재진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분야 척추통증, 관절통증, 안면통, 두통, 신경병증성 통증, 통증전반

진료시간 오전(월, 화, 금) 오후(월, 화, 금)
*화, 금 오후-신경차단술 클리닉

계절의 틈 사이로 밀려오는 적, 대상포진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이 예방의 지름길

대상포진은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대상포진은 수두에 걸렸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면역력이 저하 될 때 발병 위험이 높아지며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무리한 일을 해 피곤이 쌓이거나, 평소 하지 않던 과격한 활동,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절을 앞둔 중·장년층 여성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발병이 급증하게 되며 증상도 젊은 사람들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보통 수포가 올라오기 전 주로 감기몸살, 근육통, 바늘로 찌르는 통증 같은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이후 통증이 있던 부위로 수포가 나타납니다. 수포가 올라오기 전에는 확진이 어려워 조기에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상포진의 통증 부위는 가슴, 배, 등, 허리, 머리, 얼굴 등 다양한 부위에서 나타나며, 통증 양상은 바늘로 찌른다거나 옷깃만 스쳐도 아픈 통증, 전기가 오듯 찌릿한 느낌 등 일반적인 근육통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대상포진의 가장 흔한 합병증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통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대상포진보다 심각합니다. 60세 이상 환자의 40~70%가 경험하며 주로 화끈거리거나 쿡쿡 쑤시고 찌르는 듯 통증이 나타나 짧게는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 수년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대상포진은 치료가 늦어질수록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될 뿐만 아니라 치료도 어려워집니다. 반면 초기에 항바이러스치료와 함께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받는 경우 통증이 약하게 지나가거나 합병증이 남는 빈도도 줄기 때문에 몸이 으슬으슬하고 쿡쿡 쑤시다가 몸 한쪽에 띠 모양의 포진이 생기면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으로 미리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말 | 마취통증의학과 김현중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김현중 교수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분야 척추통증, 대상포진 후 신경통, 수술 후 통증, 암성통증, 통증전반

진료시간 오전(수, 목) 오후(수, 목)
*목 오전-신경차단술 클리닉

‘단원재난의학센터’ 설립기념 심포지엄 성료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이 ‘단원재난의학센터 설립기념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대규모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대형재난사고에 대비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병원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8월 29일(금) 오후 3시 본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특히, ‘재난의학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실시된 이번 심포지엄은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안산시 정신보건센터, 안산시 온마을센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안전보건공단 등 다양한 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발표와 토론을 실시했다. 차상훈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청해 현재의 미진한 재난대응환경을 진단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재난을 예측한 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통합적인 의료 대응 체계 관리시스템 확립 및 재난의학 분야의 연구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진홍 안산시 부시장 역시 축사를 통해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문제를 되짚어보고, 안산시와 고대 안산병원이 함께 재난대응시스템을 발전시켜 안산을 안전 도시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 병원신입평가 및 2015 수련병원실태조사 성료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8월 1일(금) ‘2014년 병원신입평가 및 2015 수련병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입위원회에서 주관하여 병원신입평가 및 수련병원(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수련병원(기관)의 적정 진료 환경 및 수련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수련교육 제공이 가능하도록 신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평가단은 평가반장을 맡은 김성훈 교수(서울성모병원 핵의학과)를 필두로 총 8명이며, 평가위원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분야별로 환자안전관리, 조직관리, 시설안전, 진료지원, 특수진료지원, 수련행정 및 수련교육 등 총 57개 부분의 평가 및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실제 관련부서와 시설을 방문하여 심사했다. 대강당에서 평가위원의 의견을 취합한 총평에서 평가를 총괄한 김성훈 평가반장은 “평가 부문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안산병원이 더욱 약진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앞으로도 고대 안산병원이 수련병원으로써 전공의들의 수련활동에 더욱 힘 써주시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에 차상훈 병원

장은 “귀한 시간 내주어 우리 병원을 심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전공의들과 소통하여 수련활동을 더욱 개선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국 환자 100여명 의료봉사활동 실시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7월 13일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을 찾아가 약 100여명의 환자에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프라탕 태국불교사원에서 실시되었고, 안산병원은 가정의학과,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하여 간호부와 진단검사의학과, 의료사회사업팀 등 15명의 교직원들의 자발적 재능기부로 의료지원활동을 펼쳤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진료는 NGO단체인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과 함께 접수 및 상담에서 통역, 약사 및 한의사의 지원으로 원활히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진료공간이 아닌 협소한 공간이라 다소 치료하기 힘들었음에도 몸이 불편한 환자들의 치료 편의성을 위하여 동선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혈압검사, 혈액검사를 시작으로 가정의학과에서 먼저 예진을 거친 후 각 세부전공으로 나눠 치료하였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소를 찾은 외국인 환자들은 교직원들의 친절함과 꼼꼼한 진료로 연신 감사함을 표시했다. 봉사활동에 참

석한 최병민 진료부원장은 “태국에 와서 심신이 많이 지쳤을 텐데 미약하나마 이번 진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병원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안산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의료봉사활동을 비롯하여 안산역 무료진료, 선민회, 행복나눔무료급식소, 끝전성금, 코시안의 집 후원 등 지역사회를 밝히기 위한 사회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침으로써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4 간호부 걷기대회 ‘걸으며 소통하며’ 성료



고려대 안산병원 간호부(실장 이경진)는 내부고객간의 화합을 위한 간호활동으로 9월 20일(토) 시화 옥구공원에 ‘걸으며 소통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걷기대회에는 최병민 진료부원장, 이승훈 교육수련위원장, 송효성 경영관리실장, 이경진 간호실장 외 약 250여명의 간호부 직원이 참가했다.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참가자들은 세팀으로 나뉘어 하나된 마음으로 다채로운 게임을 즐겼으며, 그동안 숨겨왔던 끼를 맘껏 발산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이경진 간호실장은 “그동안 병원 증축 등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묵묵히 따라와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어려울 때 일수록 부서간에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서로간의 소통과 화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간호부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회 복지위원 초청 R&D 활성화 간담회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8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국회의원과 안산지역 소재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 8개 기관을 초청하여 'HT 활

성화 위한 안산사이언스밸리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의 성장동력이 되어줄 보건 의료기술 R&D 클러스터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차상훈 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국회의원을 비롯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영수 원장 등 안산사이언스밸리 주요인사 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HT(Health Technology,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및 의료기기 산업분야 정보를 교류하였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자 안산시 단원구가 지역구인 김명연 의원의 협조를 통하여 지역 유일의 3차 의료기관인 고대안산병원을 통한 HT R&D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경기도로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관계 정부부처 및 경기도의 참여 촉진 및 대형 사업 제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4년도 개인정보보호의 날' 성료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9월 30일 대강당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2014년도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를 가

졌다. 이 날 행사에는 차상훈 병원장을 비롯한 전교직원이 참석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차상훈 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늘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환자가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은경 의료정보팀장의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발표와 이를 교직원들이 퀴즈로 확인해보는 '퀴즈로 알아보는 개인정보보호' 시간이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교직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이용한 발표와 재밌는 퀴즈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환경인증제 최고등급 '그린등급' 취득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이 안산시 환경재단 에버그린21로부터 2011년 병원 최초 서비스부문 그린등급 획득 이후 다시 한번 환경인증제 서비스

부문에서 최고등급인 '그린등급'을 취득했다. 평소 의료기관으로서 에너지절약에 앞장서고 있는 안산병원은 이번 환경인증제를 통해 기준년도(2012년도) 총량대비 2013년도에 전기는 121tonCO₂, 가스는 236tonCO₂, 수도는 4tonCO₂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30년생 중부지방소나무 63,900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최병민 진료부원장은 "전 교직원이 하나 되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공유함으로써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보호관찰소와 MOU 체결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과 인천보호관찰소(소장 이우권)은 9월 29일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고 긴밀한 협력관계구축을 약속했다. 양 기

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성충동 약물치료 피치료자에 대한 약물치료, 심리치료, 약물치료 부작용 검사 등 전문적인 치료로 성폭력사범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차상훈 원장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직원 모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성도착증 환자의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여 성범죄 재발방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우권 소장은 "고대 안산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과학적 관리로 정신성적 장애를 치료하여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전성금으로 만든 사랑의 쌀 전달식



고려대 안산병원(병원장 차상훈)은 9월 4일(목) 안산시청 내 시장실에서 안산병원 교직원들이 6개월 동안 모아온 '끝전성금'으로 마련된 쌀 150포(10kg)

를 안산시청에 전달했다. 1997년에 시작된 '끝전성금'은 안산병원 교직원들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자신의 급여 및 상여 실지금액의 1천원 미만 금액을 기부하는 나눔 문화로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추석과 설에 안산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쌀을 지원하고 있다. 사랑의 쌀은 안산시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가구로 전달할 예정이다. 

진료과 및 부서별 찾아가는 친절교육



고려대 안산병원(병원장 차상훈) 친절리더(친절교육)팀에서는 8월 4일부터 25일까지 원내 친절문화 확립을 위한 '진료과 및 부서별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친절리더팀은 3주 동안 진료과와 일반부서 곳곳을 방문하며 ▲불만고객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이미지메이킹 ▲커뮤니케이션 ▲자존감 회복(힐링)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고, 교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본원의 불만고객을 사례로 들어 쉽게 공감할 수 있었고, 불만고객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친절한 설명만이 원만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고 말했다. 

언론에 소개된 논문 (2)

스마트폰 와이파이 신호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앞서 외국에서는 휴대전화 와이파이 신호 등의 전자파가 고환의 온도를 높이고 이러한 열효과를 통해 생식샘에 영향을 미쳐 정자세포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등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관찰 결과 와이파이 신호에 노출시킨 줄기세포의 증식도가 와이파이 신호 없이 39도, 37도의 온도에서 배양한 줄기세포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또 연구팀은 실험에 사용된 3개 줄기세포에 대한 세포자살, 세포감사, 성장인자 분석 등에서도 와이파이 신호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덕우 교수는 "스마트폰 와이파이 신호가 아직 분화가 이뤄지지 않은 줄기세포의 증식에 아무런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신호가 인체에 직접적 위협요인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번 실험이 와이파이 신호가 줄기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것인 만큼 모든 휴대전화 전자파가 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고 설명했다. 이번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 '두개 안면성형외과저널(Journal of Craniofacial Surgery)' 최근호에 실렸다.

고려대 안산병원 성형외과 김덕우 교수팀은 스마트폰의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사람의 원시 세포로 볼 수 있는 '지방 추출 줄기세포' 를 스마트폰 와이파이 신호에 5일간 노출한 뒤 세포의 증식도를 관찰했다.

실험에 사용된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신호를 이용해 하루 10시간 동안 4.8 Mbps의 속도로 파일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설정됐다. 실험의 대조군으로는 배양 온도를 37도와 39도로 달리하고, 와이파이 신호에 노출시키지 않은 보통의 지방줄기세포가 각각 사용됐다.



성형외과 김덕우 교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성형외과 과장
국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전문분야 미세수술, 유방재건, 악안면재건, 눈성형, 귀성형
진료시간 오전(월, 목) 오후(목)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진료

건강강좌 및 센터오픈 소개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1)

당뇨교육

- 대상 : 당뇨병에 관심 있는 모든 분
- 장소 : 본관 2층 대강당
-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3시
- 문의 : 내분비내과 당뇨교육실(031-412-5021)

	기본교육	식사교육	간호교육	교육
1주:	당뇨병의 개념 및 진단	식사요법의 원칙	운동요법	
2주:	합병증 예방 (1)	식품교환표	저혈당	
3주:	합병증 예방 (2)	열량 처방	발관리	사회복지
4주:	당뇨병 치료의 원칙	외식	자가혈당 측정법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2)

뇌졸중 교육

- 대상 : 뇌졸중에 관심 있는 모든 분
- 장소 : 별관 2층 세미나실
- 일시 : 12월 17일(수) 오후 1사-2시
- 내용 : 뇌졸중의 진단 및 치료 / 뇌졸중 예방을 위한 식사와 영양
- 연자 : 고대 안산병원 신경과 정진만 교수
고대 안산병원 영양팀 김윤주 영양사
- 문의 : 신경과 (031-412-5150)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암센터 GRAND OPEN

서해안시대 최고 암센터가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계 정상급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 인프라로
앞선 환자맞춤형 암 치료서비스를 실현합니다.

